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4년 4월 2일 수요일 제913호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눈 4·3의 상처’



3월 28일 4·3 평화공원 위령제단을 찾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4·3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

총학생회가 마련한 4·3 유적지 순례... 재학생 600여명 참가

곤을동·너분승이·평화공원 돌며 ‘제주4·3’ 관심과 이해 높여

제주 4·3 66주년을 앞두고 왕벚의 향연이 한창인 3월 28일 제46대 진짜 총학생회(회장 고광표 경영학과 4) 주최로 4·3 유적지 순례 행사를 가졌다.

4·3 유적지 및 4·3 평화공원 순례는 학생 자치기구 일원들과 재학생 600여명이 행사에 참가한 가운데 4·3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순례는 4·3 유적지인 △곤을동 △너분승이 △낙선동과 4·3 평화 공원 순으로 진행했다.

곤을동은 제주 4·3 당시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되어 터만 남아 있는 마을이다. 이 곳 주민들은 1949년 1월 4일 불시에 들이닥친 토벌대에 의해 가족이 전소되고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곤을동은 집과 집의 경계였던 돌담과 일부 집터의 흔적만이 남아있다.

너분승이에는 너분승이 4·3기념관, 4·3

희생자 북촌리 원훈위령비, 애기무덤, 음팡밭, 순이삼촌 문학비가 있다. 너분승이는 1949년 1월 17일 북촌 인근 마을인 힘덕리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이 북촌리를 지나다 무장대의 기습으로 2명의 군인이 살해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에 불을 지른 뒤 주민들을 대량학살한 곳이다. 원훈 위령비에서 학생들은 위령비에 새겨진 이름들을 손으로 짚어보기도 하며 많은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순이삼촌 문학비에는 소설에 나오는 대목들이 적혀 있다. 시체가 널브러진 것처럼 비석들을 표현했고 한 곳에는 ‘순이삼촌비’가 세워져 있다. 학살 당시 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또한 처음 4·3을 읊지에서 양지로 꺼내든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 속에서 중요한 장소로 부각된 북촌리 학살 사건의 상징적인 무대가 됐다.

김현주(언론홍보학과 3)씨는 “애기무덤의 시신들이 당시 임시 매장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북촌리 마을 주민의 학살터였던 ‘당팟’에서는 탄파가 아직까지 나온다는 것이 충격적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4·3 평화공원으로 향했다. 4·3 평화공원은 4·3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유족을 위로하는 추모공간과 4·3의 진실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2008년에 개관했다. 위령제단에서 모인 학생들은 일제히 묵념을 했다. 이후 4·3 평화 기념관을 관람한 후 유적지 순례를 마쳤다.

이유리(경영정보학과 1)씨는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도 해설사께서 4·3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좋았다”면서 “아픈 우리의 역사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4·3에 대해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하나(독일학과 3)씨는 “이번 4·3 유적지 순례를 통해서 4·3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면서 “4·3 유적지를 순례하는 동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엄숙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찾아가는 워킹홀리데이’ 설명 4일 로스쿨 강당서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윤)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공동주최로 ‘찾아가는 워킹홀리데이 설명회’가 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법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지, 워킹홀리데이 참가 방법, 유경험자 발

표, 안전정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열린다. 참가 학생은 공결처리 된다.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안전한 활동을 돋기 위해 외교부에서 설립한 비영리조직으로서,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각종 상담활동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관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본인의 계획과 목표에 맞게 최대 1년 동안 해당 국가에서 다양한 체험과 문화 등을 경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영리업체의 상업적인 정보에 피해를 입는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년 워킹홀리데이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태 기자

2014학년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JPDC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목적

제주지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함.

- 교육기간 : 1년(연 30주, 주당 2시간)
- 강의일시 : 매주 수요일 18:30 ~ 20:30
- 강의장소 :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제1기 입학안내]

• 모집인원

60명 내외

• 지원자격

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의 장 및 주요 간부
나. 기업체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다. 자영 사업체의 대표자
라. 학교 경영자와 교원, 퇴직교원
마. 예술인 및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입학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3. 17.(월) ~ 2014. 4. 8.(화)
나. 접수장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행정실(인문대학 1호관 2층)
인터넷접수(humanities@jejunu.ac.kr)

•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http://humanities@jejunu.ac.kr/다운로드>) 1부
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사진(3×4) 2매(추후제출 가능)

• 합격자발표

가. 일시 : 2014. 4. 8.(화) 17:00 이전
나. 장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수강료 납부

가. 납부기간 : 2014. 3. 27.(목) ~ 4. 8.(화) 지정은행 영업시간 내
나. 연간 납부금액 : 금 1,980,000원
(입학금 180,000원, 등록금 1,200,000원, 자치회비 600,000원)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보조금 3천만원 지원

다. 1학기 납부금액 및 납부개좌

- 입학금 및 등록금 : 금 780,000원(입학금 180,000원, 등록금 600,000원)

(농협 301-0145-0472-11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

- 자치회비 : 금 300,000원(농협 302-0447-0141-11 박순옥)

* 지정기간 내에 자정은행에 **반드시 실명으로 개좌 입금** 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유의사항

가.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원서접수 시 사진 2매 제출
- 1매는 원서 부착용, 1매는 원우회 수첩 제작용
- 사진크기 : 3×4cm, 사진 뒷면에 성명, 전화번호 기재
다.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문의처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행정실 (Tel. 754-2702~2703, 2736 Fax. 756-2722)

사설

4·3운동의 성과를 당당히 계승하자

제주4·3이 제66주년을 앞두고 마침내 국가주념일로 지정되었다. 2000년의 4·3특별법 제정·공포, 2003년의 『진상조사보고서』 제택과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06년의 노무현 대통령 위령제 참가 등에 이은 4·3운동 장정(長征)의 성과와 빼거나 아닐 수 없다. 만시지탄(晚時之歎)은 있지만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더욱이 올해는 한라산 금족령 해제로 제주4·3이 공식 종결된 지 꼭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기에 국가주념일 지정이 각별한 의미로 다가선다.

돌이켜보건대, 4·3진상규명을 위해 우리 제주대학생들이 걸어온 길은 대단한 것이었다. 1960년 제주대생 7명의 4·3진상규명동지회 활동은 4·3운동사의 첫발이라는 족적을 남긴 것이었고, 1987년 총학생회의 대자보 투쟁 이후 계속된 제주대생의 4·3진상규명운동은 사회적·전국적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는 결정적 역할을 해내었다. 말하자면 제주대학생들의 진상규명운동이 그동안의 4·3운동사에서 굵직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때마침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김기삼 작가의 '사진으로 보는 4·3진상규명운동'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4월 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대학생들의 4·3운동 관련 사진 40여 점이 선보이고 있다. 1989년 학생회관과 음평밭에서 펼쳐진 추모제 장면과 지금처럼 벚꽃이 흐드러진 경문 밖 진입로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 등은 4·3운동에서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당당하게 계승해야 한다. '그땐 그랬지' 라며 추억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지성의 전당답게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학교당국에서는 지난 제8대 총장공보 과정에서 공론화된 4·3연구기관 설립 약속을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현재 탐라문화연구소에 '제주4·3연구센터'를 두는 규정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루빨리 확정하고 인적·물적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과과정에 4·3 관련 강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할 것이다(현재는 사이버수업만 이뤄지고 있음).

학생회 차원에서의 계승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4·3에 즈음한 성명서 발표 등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4·3진상규명의 주역이라는 자랑스러움을 면면히 계승할 수 있도록 '4·3청년축전' 같은 행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과거처럼 훌날리는 벚꽃 속에서 구호를 외치고 화염병을 던지는 게 아니다. '벚꽃엔딩'을 부르면서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선배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청년으로서의 역사의식도 다지고 낭만을 즐기자는 것이다. 이제 제주4·3은 '어둠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 거듭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눈 먼 거북이와 다리 부러진 자라(盲龜破籠)

불가(佛家)에서는 종종 화두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길을 걷는 도반과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한다. 도반은 친구와 같은 이를 말하는데, 살아가면서 좋은 도반과 스승을 만나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다. 맹구파별도 이를 두고 하는 말인데, 고사의 내용은 옛날 바다 속에 있는 옥초산이 무너지자 산 밑에 살던 거북이는 눈을 잃어 앞을 볼 수 없었고, 자라는 다리가 떨어져 헤엄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거북이와 자라는 둘이 서로 가진 것으로 없는 것을 보충하기로 하고 다리 없는 자라가 눈이 없는 거북이 등에 업혀 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나누면서 큰 불편 없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자라가 맛있는 과일을 따서 자기만 먹고 거북이에게 주지 않자 이로 인해 자라와 거북이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둘은 마침내 헤어지게 되었다. 서로 떨어져 생활을 하다 보니 불편하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며칠을 굶고 배가 고픈 둘은 서로 도우면서 배부르게 먹고 살던 때를 그리워하다가 다시 합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둘은 서로의 장점과 약점을 보충하며 헤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 지냈다는 이야기이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배려와 포용, 사랑과 희생을 전제로 같이 있을 때 서로의 중요함이 부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음은 불들 수 없기에 더 소중하고, 우정은 깨기 쉬운 것이기에 더 귀한 것이라고 한다. 둘에서 하나를 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도, 사랑에서 희생을 빼면 이기(利己)가 된다는 것을 얼마나 알까?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존재이다. 자기를 돌아봄으로써 더 나은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 삶의 지혜는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겪은 일들을 성찰하여 의식으로 켜켜이 쌓음으로써 지혜로워진다. 치열한 내면의 성찰을 통해 숙성된 지혜라야 원숙한 삶의 지혜가 되는 법이다.

얼굴을 비추는 거울은 있지만 마음을 비추는 거울은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모두 아는데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있다. 자기를 비평하는 데 익숙한 사람만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시각으로 자신의 인격을 염볼 수 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현실을 딛고 서서 미래를 준비한다. 미래는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서 두려움과 설렘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뜻이라 하였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지런히 답을 마련할 때이다.

‘강의명’ 만 같으면 똑같은 수업? 수업권리 침해

과목코드·전공·이수학년 달라도 재수강 처리돼

프로그램 상 동일 교과목 처리… 내년 개편 하겠다

다른 내용의 강의가 단지 강의명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수업으로 처리돼 학생들의 수강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언론홍보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사회학과 학생은 지난 1학기 수강 신청기간에 언론홍보학과의 '정보사회론' 전공 강의를 수강하려했지만 재수강 처리된다는 말에 수강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회학과에서 수강했던 '정보사회론' 강의와 강의명이 같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두 강의는 강의명만 같을 뿐 이수학년과 전공, 교재, 강의 내용과 과목 코드까지 모두 다른 강의다.

이 학생은 각 강의의 교수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봤지만 두 강의는 확연히 다른 강의였다.

이 학생은 사회학과 문의를 하자 "같은 수업일 수 없다"며 "교과목을 통해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학과에서는 "강의명이 같으니 같은 수업이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학과에서는 또한 "강의명을 바꾸면 앞으로 이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이 재수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 학생은 "이름 한글자만 바꿔도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단지 강의명이 같기 때문에 수강하지 못했다"며 "강의명을 바꾼 뒤 대체과목으로 지정하면 재수강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학생은 또 "주변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수강을 포기하는 사람을 종종 봤다"며 "복수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과일수록 교과과정 편성시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2절 제16조에는 '학문 간의 연계를 유지하며 인접 학문과의 중복을 피하여 능률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과 달리 학생들은 강의명 중복으로 인해 수강할 권리가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주연 기자

‘첨단디지털 도서관 들어선다’ 제3도서관 기공식 열려

미디어제작실·스터디실·세미나실 등 복합문화공간 갖춰

허향진 총장 “도민편의 제공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될 것”

대학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제3도서관 착공을 위해 3월 27일 첫삽을 뜨고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는 허형진 총장, 김태환 총동창회회장, 안민찬 기성회장, 중앙도서관 운영위원, 전·현직 도서관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홍수 중앙도서관장의 경과보고 △김지학 시설과장의 공사개요 보고 △허향진 총장 기념사 △김태환 총동창회장의 축사 △태이프 절단식과 시삽 순으로 이뤄졌다.

허향진 총장은 "디지털도서관이 편의를 제공하고 제주대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3월 27일 제3도서관 신축 기공식 행사에서 허향진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삽을 하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3월 26일자(912호) 1면의 '반복되는 학생회비 논란' 신입생 부담은 더 가중' 이란 기사 내용 중 해양과학대학 학생회비가 '1년에 14만원'으로 보도됐으나, '4년에 14만원'임으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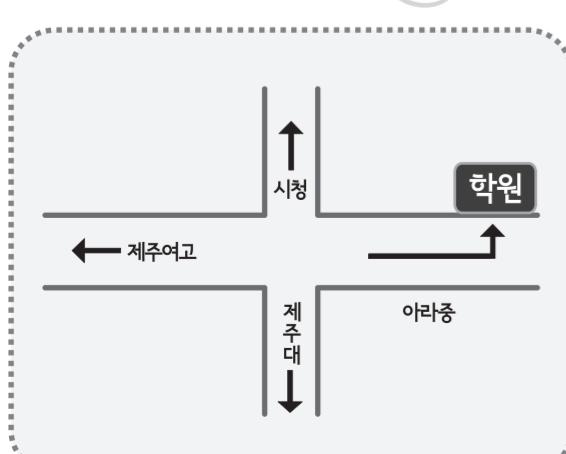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 JUMP news.jejun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 교육 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 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755-9900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4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60주년을 맞이하여,

제34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 : 2014년 6월 23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파일을 E-mail :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파일은 본인 이름과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바랍니다.

5. 발표 : 제주대신문 919호(2014년 7월 16일(수)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출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출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제62기 수습기자 모집

1.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모집대상 : 2014학년도 학부 신입생

- 모집기간 : 4월 3일 (목)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제주대미디어(news.jejunu.ac.kr) 접속 후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서 제주대신문 입사지원서(첨부파일)을 받아 작성. 제주대신문 편집국(취업전략본부 3층)에 제출

2. 기타 제출 서류 :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성격, 입사동기) 1부

칼럼(자유주제) 1부

3. 혜택

-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원고료(기사 성과에 따라), 취재 수수료(매월) 지급

- 현직 기자들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 중앙 언론에서 활용하는 편집시스템을 통한 편집교육

- 제주대신문 학생기자 출신 도내외 주요 언론사 취업

-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현재 일본 오사카, 도쿄, 오키나와, 중국, 필리핀, 라오스, 미국, 몽골, 대만, 베트남 등 현지 취재)

4. 면접 : 입사지원서 제출 후 개별 통보(추후 면접일 조정)

5.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6. 문의 : 제주대신문 편집국(064-754-2277-9)

제주대신문

www.jnuri.net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감동!

미래를 여는 제주의 새 패러다임! <제이누리>가 있습니다.

제주를 여는 창!

jnuri

인터넷 뉴스 & TV

제보 및 문의 : 064-748-3883

FAX. 064-748-3882 E-mail. jnuri@jnuri.net

다음 본사 2012년 이전... 제주대와 '다음트랙' 운영

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 탐방 <1> 다음커뮤니케이션

2003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한 신입사원이 이재웅 전 대표와 조찬모임에 지각을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유는 2시간이 넘는 출근 시간 때문이었다. 이 대표는 물리적 위치를 옮기는 것만으로 엄청난 효율이 창출될 것이라 확신했고 제주로 본사 이전을 꿈꾸기 시작했다. 계시판을 통해 사내 토론을 벌였고, '즐거운 실험' 이란 이름으로 2004년부터 본사 제주 이전을 시작한 다음은 그 해 3월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협약을 맺고 '제주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그해 4월 인터넷지능화연구소 소속 16명이 유수암리에 첫발을 내딛은 후 2006년 완공된 다음 글로벌미디어센터(GMC)에 130여 명의 직원들이 본격적으로 제주생활을 시작했다.

◇다음 스페이스의 시작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4526억원을 들여 2005년 6월 착공해 2010년 3월 25일 준공한 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 2012년 4월 신사옥 '스페이스단원(Space.1)'에 둑지를 틀었다. 스페이스단원은 면적 9184㎡에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현재 직원 4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테라스마다 잔디를 심어 상공에서 봤을 때 오름을 떠올리게 했고 실내에서 봤을 때 화산 동굴을 형상화해 제주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스페이스단원 내에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상당히 신경을 썼다. 수면실과 게임룸, 아이디어 룸을 마련해 일을 하다 잠시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외부에는 게이트볼장, 골프 퍼팅 연습장, 테니스 코트, 농구 코트가 있어 점심과 저녁시간을 틈타 많은 직원이 운동을 즐기고 한다. 빗발드 조성돼 주말에 자녀와 함께 농작물을 가꾸기도 한다.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짓고 있는 다음의 두 번째 건물인 '스페이스단트(Space.2)'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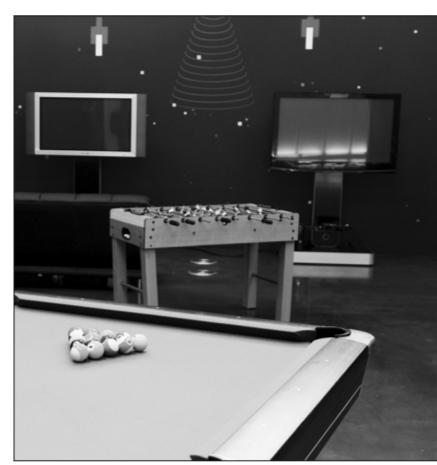
치지 않고 교육·문화·복지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제주대학교와 함께하는 다음트랙

다음은 우리대학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교육과 함께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다음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던 중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2007년부터 온라인 서비스 개발 실무에 대한 강의를 다음 개설 기회가 제공된다. 다음은 또 올해까지 6년째 다음트랙에 참여하는 우수학생 10명을 선발해 매년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이들 중 졸업 후 다음에 채용되기도 한다. 다음트랙을 수강한 졸업생은 다음은 물론 여러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또한 학생은 강의를 한 교수와 한 팀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은 채용에 있어서 학별과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대학 학생을 특별하게 우대해 채용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다음은 지역 인재 고용 및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으로 제주경제와 문화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제주 지역을 즐겁게 변화시키자'는 생각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회성에 그



2012년에 완공된 스페이스단원(위)은 사무공간,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들이 마련돼 있다. 지하에 마련된 수면실 및 게임룸(아래)은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있다. 2012년 공연·여행·강연을 결합한 'GET in Jeju'를 시작으로 영화제작관계자 강연시리즈 '엔딩크레딧 가까이 보기', 제주여성문화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제주 여성영화제' 등을 후원하는 등 지역 문화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페이스단원 입구에는 노트북을 손에 펼친 들판방이 보인다. 다음은 이를 보고 '제주를 닮았지만, Daum을 닮았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다음을 이전기업이라고 하지만 다음의 본사가 제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기업'이 될 것이다. 강경태 기자

인터뷰 한동현 다음커뮤니케이션 지역협력실장

"커뮤니케이션 능력 갖춰야 진짜 인재"

▶ 다음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는.

"입사 10년차인데 처음에는 자유분방한 분위기 때문에 적응을 못했다. 인터넷 기업의 공통점이 회사 분위기가 자유롭고 수평적이다. 호칭도 '님'을 붙여 사용한다. 이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의미이다.

휴게 공간과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은 여가와 일을 잘 조화시켜 가장 좋은 업무 집중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출퇴근 시간이 엄밀하게 확정돼 있지 않고 유동적이다. 출퇴근도 확인도 하지 않고 팀 내에서 자율적으로 확인한다.

또 한 분은 얼마 전 제주에서 서울로 자리를 옮겼다. 이 분은 초등학생인 자녀와 제주에서 5년 동안 보내며 주말마다 자연과 함께한 것이 인생에 있어 선물을 준 것 같아 뜻해 했다고 한다."



운 생활에 적응이 안됐다. 바쁘게 살다가 한가한 제주생활에 적응이 안 된 것이다. 다시 서울로 가고 싶다고 요청해서 옮겼는데, 이미 제주의 생활에 적응을 해버려 바쁜 서울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고 한다. 그 분은 현재 다시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한 분은 얼마 전 제주에서 서울로 자리를 옮겼다. 이 분은 초등학생인 자녀와 제주에서 5년 동안 보내며 주말마다 자연과 함께한 것이 인생에 있어 선물을 준 것 같아 뜻해 했다고 한다."

▶ 제주대 학생들에게 한 마디.

"다음은 제주대와 산학협력프로그램

인 '다음트랙'을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다음에 많은 제주대 학생들이 입사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대학생들은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 '다음트랙' 출신자들을 살펴 보면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은 출중하지만 면접에서 많이 떨어진다. 면접에 있어 다들 만족하고 있다.

또 제주가 지닌 산, 바다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가를 보낸다. 윈드서핑과 오징어 낚시를 하자고 계시판에 글이 올라온다. 주말에는 삼삼오오 모여 올랫길을 걷는다. 기혼자들은 제주에 정착해서 가정적으로 변했다.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퇴근을 하면 오롯이 가족과 보낼 수 있다. 출퇴근에 찌든 서울과 달리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다. 96% 이상의 직원이 생활에 만족하는 등 제주에서 근무하는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

▶ 제주 생활 중 애피소드가 있다면.

"제주에는 지원자 중심으로 내려왔다. 어떤 분은 제주에 내려오니 여유로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이 점을 강조해야 한다."

또 자기가 원하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상처를 받아도 버텨내는 인내력이 중요하다. 인생은 굴곡이 많다. 항상 인생 곡선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바닥에 달을 때

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데 요즘 학생들은 이런 점이 부족하다."

강경태 기자

JDC 대학생 아카데미

글로벌 인재는 열린사고와 유연함 갖춰야

제주관광산업과 JDC의 역할

김 한 옥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제주사람들은 왜 친절하지 못할까. 그 답은 제주의 역사적 배경에 있다. 제주는 1105년 고려 속종 때 탐라국이 일개의 군으로 편입되면서 변방의 설움과 한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삼별초의 난, 출륙금지령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남에게 친절을 베풀 여유가 없었다. 고려 시대에 봉고가 탐라총관부를 설치해 100년 가까이 제주를 통치했다. 탐라로 부임한 관리들은 한양에 다시 상륙하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제주 백성들을 수탈하곤 했다.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하려면

제주도 개발과 관련한 역사는 1910년부

터 시작된다. 지금은 제주향이라 불리는 산지향 개발계획이 맨 처음이다. 일제에 의해 산지향 개발은 제주를 개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 기지였다. 1930년대 일본은 본격적으로 제주도 개발계획을 만들었다. 항만, 비행, 도로 등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개발공사가 시작됐다. 이어 제주도 개발계획이 최초로 문서화된 것은 1963년도다.

당시 제주향과 서귀포향을 자유무역으로 개발하고 제주를 자유무역구역으로 만들자고 했다. 그때부터 4번에 걸쳐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다가 취소되기를 반복했다. '홍콩을 따라잡을 수 없다', '중국이 바로 옆에 있기에 안보상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그 이유였다. 본격적인 제주 개방의 역사가 채 50년이 안 된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가 된 이상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향해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열린 태도 가져야 생존 가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이 같은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제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할 때인 17년 전 그했던 청사진을 JDC 이사장이 되고 나

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

1998년 이후 우리나라에도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만들 어보자는 여론이 일었다. 지정학적인 이점과 호텔과 골프장 등 휴양시설이 많다는 점,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특별한 법령과 제도가 용이하다는 판단으로 시작된 것이 국제자유도시다. 현재 신화역사공원, 영어 교육도시, 관광미항개발, 예래휴양형 주거 단지 조성 등의 주요사업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외자유치가 제대로 성사된다면 제주관광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제주도민의 취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지역주민 우선 고용, 소득향상사업 지원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

그러나 도내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제주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변화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역의 발전여부는 달라진다.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폐쇄적인 사고를 버리고 열린 사고와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자기 영역만 최상이라는 자만심은 변화를 방해한다. 변화가 두려워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발전이 없다.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 보존과 시대 변화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때 용성한 나라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변화는 보존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중국 진시황은 2000년 전에 외부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고, 로마는 길을 뒤집어놓는 대형기종 대신 소형기종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로 기꺼이 동남아 지역만 보더라도 체인형 고급관광호텔이 즐비한데 제주에는 한 곳도 없다. 제주에 몇몇의 특급호텔이 있지만, 속박시설도 국제도시 수준에 맞춰서 시설돼야 한다. 세 번째로 개발 이전에 환경 보존도 중요하다. 제주 지하수는 생명수다. 오염된 지하수를 바다로 흘려 내보내는 것도 문제이고, 다시 정화하려면 막대한 돈이 든다.

남을 존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유럽의 다른 민족보다 머리도 날고 체력도 약하며 기술도 떨어지는 로마가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간 것은 바로 '정신'이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좋은 정신을 접목해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한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정용복 팀장

인생의 힘, 챔피언처럼 싸우는 방법

김 남 훈 / 격투기 해설가

격투기 해설자가 되고 싶어서 2002년부터 모든 방송국에 서류를 냈지만 통과가 안 됐다. 스페인 없었기 때문이다. 해설자가 되기 위해선 올림픽 금메달을 땄거나 챔피언 벨트가 있거나 현역 시절에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007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동영상을 올리다 보면 방송국에서 내 존재를 알게 될 거라 생각해서 '로우킥의 비밀' 이란 동영상을 만들었다. 이 동영상이 인기를 끌었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한 방송국에서 가을 개편이 있는데 해설자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고 했다. 결국 오디션을 봤고 합격 통보를 받았다.

◇작은 첫 방을 노려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노력과 창의성을 보여 주면 된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열정으로 극복해야 한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분야에만 집중을 한다. 머리와 스페인은 뜨거운 관심과 열정, 꿈을 이기지 못한다. 스페인 단어를 사람에 게 쓰는 게 비정상적인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사람 개개인이 곧 스페인이다. 격투기에서 도 팔 길이가 길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어쨌거나 팔이 짧은 사람은 격투기를 하지 못하고, 스페인 모자라면 처음부터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다. 꿈은 원래 장애물과 원플러스원(1+1)이다. '첫 방'을 강조하고 싶다. 격투기에 예를 들자면 어떻게든 시합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상대를 때려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몸을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주먹을 날려야 하는지 알게 된다. 너무 큰 목표가 아닌 작은 목표를 세워 그 '첫 방'을 날려보면 좋겠다. 그럼 연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표도르는 절차한 이성으로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불어도 연승했다.

◇인생은 자기만의 기술로 끝까지 싸우는 것

프로레슬러로 활동하며 하반신 마비를 겪었던 경험도 있다. 로프 반동을 하다가 장 외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손으로 다리 운지에 적응이 안됐다. 바쁘게 살다가 한가한 제주생활에 적응이 안 된 것이다. 다시 서울로 가고 싶다고 요청해서 옮겼는데, 이미 제주의 생활에 적응을 해버려 바쁜 서울 생활에 적응을 못했다고 한다. 그 분은 현재 다시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한 분은 얼마 전 제주에서 서울로 자리를 옮겼다. 이 분은 초등학생인 자녀와 제주에서 5년 동안 보내며 주말마다 자연과 함께한 것이 인생에 있어 선물을 준 것 같아 뜻해 했다고 한다."

▶ 다음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는.

"입사 10년차인데 처음에는 자유분방한 분위기 때문에 적응을 못했다. 인터넷 기업의 공통점이 회사 분위기가 자유롭고 수평적이다. 호칭도 '님'을 붙여 사용한다. 이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의미이다.

휴게 공간과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은 여가와 일을 잘 조화시켜 가장 좋은 업무 집중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출퇴근 시간이 엄밀하게 확정돼 있지 않고 유동적이다. 출퇴근도 확인도 하지 않고 팀 내에서 자율적으로 확인한다.

제주 대학교는 일관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팀장과 팀원의 합의에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내도록 한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상부의 명령이 아닌 담당자의 의사 판단에 따라 협의해 일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이전 후 직원들의 제주 생활은.

"직원들은 다양한 여가생활을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가족, 동호회 등 사람들은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어 다들 만족하고 있다.

또 제주가 지닌 산, 바다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가를 보낸다. 윈드서핑과 오징어 낚시를 하자고 계시판에 글이 올라온다. 주말에는 삼삼오오 모여 올랫길을 걷는다. 기혼자들은 제주에 정착해서 가정적으로 변했다. 친구도 없는 이곳에서 퇴근을 하면 오롯이 가족과 보낼 수 있다. 출퇴근에 찌든 서울과 달리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다. 96% 이상의 직원이 생활에 만족하는 등 제주에서 근무하는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

▶ 제주 생활 중 애피소드가 있다면.

"제주에는 지원자 중심으로 내려왔다. 어떤 분은 제주에 내려오니 여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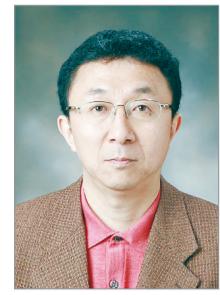
일어날 것이다.

냉철한 이성은 필요하다. 러시아의 격투기 선수 에밀리아넨코 표도르는 다른 헤비급 선수들 보다 키가 10cm 이상 작고, 몸무게도 30kg 이상 더 낄간다. 그런 그가 챔피언이 된 이유는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팔 길이가 긴 선수와 맞을 때는 스텐딩 대신 그라운드로, 몸무게가 거대한 선수와 맞설 때는 거리를 갈리면 안 되니 철저하게 스텐딩 공격을 택했다. 우리가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분노로 반응하는 데 그건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차가운 이성으로 해결해야 한다. 표도르는 철저한 이성으로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불어도 연승했다.

필살기는 살아남기 위한 집약적 기술을 일컫는다. 지금은 달콤한 위로와 조언이 대세가 되는 시대에서 화

‘화해와 상생의 4·3정신’ 계승 위한 사회 공감대 절실

기고 4·3 국가추념일 지정의 의미



박 찬 식
제주4·3평화재단
진상조사단장

◇국가추념일 지정과 그 의미

정부는 2014년 3월 24일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4월 3일을 국가기념일에 포함시키기로 발표했다. 정식 명칭은 ‘4·3희생자추념일’이다. 이로써 지난 시기 냉전과 분단,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소요사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죽어간 수많은 희생자들을 국가가 추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2000년 공포된 4·3특별법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의 확정과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이어서 국가기념일 지정이라는 커다란 4·3 해결의 역사적 과정이 실현됐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기조로 한 국정과제를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될 큰 죽적을 남겼다고 하겠다. 지난 21세기를 맞이하기 직전 국회에서 4·3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진상조사와 희생자 신고가 이뤄졌고, 결국 2003년 10월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어 대통령의 사과가 이어졌다. 2005년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고, 평화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과 명예회복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1998년 4·350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특별법 제정운동의 결과,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기 직전 국회에서 4·3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진상조사와 희생자 신고가 이뤄졌고, 결국 2003년 10월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어 대통령의 사과가 이어졌다. 2005년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고, 평화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과 명예회복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2000년 1월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의 제정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은 제주4·3사건은 실로 사건 발생 50여 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에 의해 재평가를 받게 됐다.

2003년 10월 확정된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밭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속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은 4·3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원흉을 위령하고 도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4·3 해결운동에 주력하여 왔다. 하지만 4·3에 대한 논의는 금기의 대상이었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거론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로 여겨지는 암울한 시대를 겪어왔다. 그러기에 4·3 진실 찾기 운동은 숨겨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운동이며, 인권 회복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또한 4·3평화재단이 국가가 4·3희생자를



1989년 4월 3일 치러진 41주기 4·3 추모제 당시 사진.

추념하는 데 가장 적합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요구된다. 4·3평화재단은 국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합심하여 이루어낸 민·관협력형 법정기구이다. 4·3특별법에 의해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주간진상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4·3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총본산이다. 중앙정부는 4·3평화재단을 4·3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노력을 사회적 해결로 확장시키고 진정한 국민통합·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평화기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 사가(史家)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힌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3희생자추념일’이 되려면 대한민국 정통성에 맞지 않는 자들은 ‘희생자’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2001년 현법재판소가 4·3관련 위헌소송 사건을 각각 처리하면서 ‘4·3희생자’에서 배제돼야 할 범위를 밝혀 놓았고, 이를 수용한 4·3중앙위원회는 심사기준을 확정하여 이미 희생자 확정을 일단락 시킨 바 있다. 이 시점에서 흑여 ‘반란세력’, ‘주모세력’ 가려내기가 또 다른 희생자·유족에 대한 이념적 덫질로 변질되며 화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해온 제주도민 공동체가 다시금 가해와 피해, 양민(良民)과 불량민(不良民)으로 균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제주4·3유족회와 제주주체향경우회가 화합과 미래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선언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4·3의 역사적 성격 규명보다 더욱 앞서 4·3사건의 와중에서 죽어간 모든 군인·경찰·민간인들의 희생을 가해·피해의 체험과 좌·우 이념 대립구도를 넘어서 화해와 상생의 평화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킴으로써 시대적 아픔과 희생으로 관용(寬容)하였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재단의 역할은 막대해졌고 책임감 또한 훨씬 무거워졌다. 그러나 많은 갈등과 난제가 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4·3문제 해결 과정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커다란 강줄기를 이루며 화합의 정도(正道)를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길이 과거보다 더욱 험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국선열과 4·3희생자 등 선인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듯이 우리가 치한 거친 현실도 밝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우리 스스로 자신감과 공감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4·3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 근거 마련

국가추념일 지정은 이념논쟁 해소할 수 있는 계기

추가진상조사 통해 미완의 문제 해결해야

나아가 4·3위령제는 대한민국의 추념 행사를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 ‘평화정신’을 선포하고 구현하는 보편적 행사로 정착해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가기념일 지정에 수반하여 많이 신작한 미해결 과제가 풀려나갈 것이다.

우선 중앙정부가 나서서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혜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80세 이상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4·3평화재단이 60세 이상의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병원진료비 등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국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지원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4·3희생자는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의 ‘국가가 위로해야 할 희생자’로 대우해야 할 것이다.

또한 4·3평화재단이 국가가 4·3희생자를

◇앞으로의 과제

한편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현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4·3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는 4·3희생자의 실상을 밝혀내기 위한 것인데, 4·3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시각이 일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4·3사건의 성격 규명은 다시금 4·3문제가 희생자는 도외시된 채 이념 논란의 소용돌이로 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3년 10월 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때 4·3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고건 국무총리가 “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의 목적으로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어 작성되었으며, 4·3

그러나 순국선열과 4·3희생자 등 선인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듯이 우리가 치한 거친 현실도 밝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우리 스스로 자신감과 공감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로컬뉴스

올해 66주년 맞은 4·3 국가추념일로 지정

제주의 오랜 숙원 마침내 이뤄

제주특별자치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4·3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안전행정부의 주관아래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1월 17일자로 입법예고한 후 추념일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

이어 지난 3월 21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월 2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마침내 마무리됐다.

4·3 추념일 지정 과정은 2012년 12월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에 추념일 지정이 포함, 2013년 8월 6일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부대의견을 포함한 4·3특별법이 개정·공포됐다. 이어 2014년 1월 10일 제주자치도지사가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조속한 추념일 지정건의에 대해 그 당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확약하면서, 같은 달 17일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입법예고를 시작했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가 되면서 2000년 6월부터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최초 신고가 이뤄져 희생자 1만4032명, 유족 3만1253명이 심사·의결됐다. 지난해 5차 추가 신고된 4·3희생자 326명, 유족

제주대 어류질병센터

해양부에 1억 지원받아

제주대학교의 전국 최초 어류질병예방 백신센터가 연구비 1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센터가 해양수산부의 수산백신분야 연구주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책임교수 이재희 수산생명의학전공)는 어류질병 예방백신센터 유치를 위하여 2013년도 초부터 공동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이들은 사업기간 7개년 총사업비 77억원의 R&D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을 위한 대응지금 지방비 1억원을 투입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어류질병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주도록 3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업내용은 △박테리아성, 기생충성, 바이러스성 예방 백신 개발 및 산업화 △어류 백신 생산설비 구축과 전문가 양성 △어업인 교육홍보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이 전국 최초로 이뤄졌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제주지역에 맞춤형 백신개발이 가능하여 폐사율 저감 및 우량 양식어류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창업선도대학 창업자 모집

유망창업자 발굴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중소기업청의 ‘2014년 창업선도대학(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에 의하여 제주지역 유망 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 회망 대상을 4월 8일까지 모집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에 따른 시제품제작비·기술정보·활동비·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창업선도대학(제주대)이 보유한 창업지원 노하우 및 인프리를 활용하여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이며, 사업참여 회망자는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창업지원단은 예비창업자 밀착 프로그램 운영, 일반인 실전창업 강좌 개설 등을 추가로 추진중이다. 이후에도 창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제주지역 창업거점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 공고내용과 계획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산업경제정보망-기업지원-지원사업-창업 지원)를 참고하면 된다.

‘중국어체험 학습관’

제주도민에게 선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어체험 학습관’을 도민들에게 제공한다. 학습관은 중국 관광객이 500만을 돌파하면서 제주도의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설치됐다. 이는 제주 관광 성장에 소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국 최초로 운영된다.

중국어체험학습관은 센터장, 사무원, 강사 등 총 8명의 전문인력을 갖추고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자율학습자에게도 무료로 개방한다.

주요 시설로는 특정 상황에 맞는 회화를 학습할 수 있는 다큐멘트 트레이닝실, 중국현지 영상을 통해 중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영상트레이닝실, 단어·문장·회화를 학습할 수 있는 의사소통 트레이닝실, 1:1 코칭실이 구비됐다. 그 외에도 원어민 강사 등 전문강사 6명을 배치하여 입문단계, 기초 단계, 대화단계의 레벨 테스트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용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다음달 이용신청자를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접수방법은 홈페이지(www.jjctc.or.kr), 전화, 팩스, 메일(jjctc@daum.net)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학습관이 중국문화권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정세 변화와…’

제주평화연구원 세미나

제주평화연구원(원장 문태영)이 지난 3월 28일 개원 8주년 기념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제주평화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 제1세션에는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인도적 지원의 정책적 효율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성준(윤리교과교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는 신법식 서울대 교수가 ‘동북아 소지역 협력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제를 다뤘고 진행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포럼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을 논했다. 이어 김재운 국회의원의 원을 비롯한 강근형 제주대 평화연구소장, 김해용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자문대사, 고바야시 소메이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가졌다.

한편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동아시아의 다자협력을 통한 평화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한 연구와 교류·네트워크의 거점 마련 차원에서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력을 통해 개원했다.

자료 제공=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실 정리=강수빈 기자

아라초대석 〈4〉 제주 최연소 해녀 ‘김재연’ 씨

바다에서 삶의 진리 깨달은 해녀

“바당 지기전 험신다 무사 힘들댄 고 람수광? 그거 잘못된거 마씸.”

바름을 머금은 듯 세찬 목소리,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바다 같은 얼굴을 한 김재연(37)씨.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단아 하나가 문득 머릿속을 스쳤다. 이분은 정말 ‘강하다’고,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지키는 당당한 여인,

교수시론

이명곤
철학과 교수

‘노아’ 이야기와 현대사회의 모습

최근에 영화 ‘노아’를 보았다. ‘노아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성서의 이야기이다. 영화를 본 뒤 느낀 것은 태초에나 현대에나 그 형식에 있어서 다를 뿐이지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태초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지구전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구이전에서도 일어나고, 거대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또한 미세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영화의 내용이 성서의 내용과 다른 점은 ‘노아’ 역시도 의인은 아니었다는 설정이며, 따라서 신의 뜻은 ‘지구라는 낙원을 살리기 위해’ 노아의 가족을 마지막으로 인류가 멸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도 끝장나는 이 역사적 드라마를 묵묵히 수행하고자 한다. 자신의 자녀들은 ‘성실하고 선한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노아는 ‘자신도 의인은 아니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의 상황 중에 있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부조리 철학자’의 사상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새로 탄생한 자신의 손녀를 죽이지 못하여 신의 뜻을 저버렸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노아를 통해서 성서적 의인의 모습을 아련웃이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진정 ‘진리’ 때문이라면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가족’ 마저도 희생할 수 있다는 ‘이기주의’에 대한 극복’을 보았기 때문이다. 가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기존의 헬리웃의 영화와는 사뭇 달랐다. 영화에서는 마지막 반전도 없지 않았다. ‘인류의 종말’이라는 이 대전제가 신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노아의 ‘선택’ 즉 노아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것임을 노아가 깨닫게 되고, ‘이번에는 인간들이 향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데서 영화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결국 인간은 ‘이기적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영화를 접종해서 본다면 영화 속에서 많은 가치 있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지구는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 ‘낙원인 모든 생명체가 번영하는 바로 이 지구라는 점’,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는 것’,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신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의로운 자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종말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근자에 들어 세간에 뉴스거리가 될 만한 큰 소식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거나, 사회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고 공동의 삶을 지향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바로 그 장소’ 일 것이다.

임반도 점령사건’이나, 북한의 노골적인 ‘핵개발’ 선언과 미사일 발사사건’ 등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삶’을 결코 생각하지 않겠다는 이기주의의 발로이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지만, 인간이기에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거짓’이다.

인간은 본성을 넘어서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이며, 나아가 타자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사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흉악인간’의 건국이념은 출발부터 거짓말이 될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어떠한 사회인가, 제주도는 어떠한 사회인가 하는 것에도 정답은 없을 것이다. 인간이 사는 사회란 항상 진행형 중의 사회이며,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다수의 구성원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실 낙원인 태초에 만들어 진 곳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다. 사회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고 공동의 삶을 지향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바로 그 장소’ 일 것이다.

“
인간은 본성을 넘어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타자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다
”

아라캠퍼스 일부 입주업체 최저임금 안 줘

독자기고

전호광
수의학과 4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지점에서는 4100원 전후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는 2013년(4860원), 2012년(4580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알바생들에게 ‘임금과 권리에 대해서 요구해라’고 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적어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규범을 배우고 의회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이러한 현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학내 편의점 입찰시 최저임금의 준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현재 입점한 지점에 대해서 학교 행정처와 학생회 등에서 강력하게 임금준수, 휴식 시간보장, 주휴수당 등 최소한의 법적인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대학의 교훈에도 ‘정의’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물론 편의점 업주의 입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업체와의 계약관계나 교내라는 특수성에 의한 판매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고충이 있다. 하지만 일부 통계에 따르면 교내 입점 편의점의 매상이 외부 편의점에 비해 2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시험기간이 되면 많게는 1200%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성신여대 등)에서는 교내 입점 편의점에 상시 1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한다. 학교의 3주제를 외치는 대학이라면, 학생은 스스로 이러한 요구의 목소리를 내야하고 학교당국에서도 학생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학교를 함께 꾸려나가고 구성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알고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려고 보름동안 아

잃어버리려고 떠난 여행

김수진
사회학과 3

지난 겨울방학, 보름동안 우리나라를 걸어서 여행했다. 여행 경비로 열미를 쓸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도 정하지 않았다. 여행으로 얻으려는 것이 없었다. 그것이 내가 여행을 떠난 이유였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대학생이 되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욕심을 많이 냈고 이것저것 많은 일을 벌였다. 도전한 것들 중에서 잘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들도 있다. 덕분에 값지고 멋진 것들을 얻기도 하고, 실패의 쓴 맛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다 내가 좋아서 한 일들이 이긴 했지만 이것저것 얻고 나서 살펴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내가 이렇게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얻었구나. 그래서 값진거구나 할 겨울이 없었다. 얻고 나서 쌓아두기만 했고, 뿌듯해하고 기뻐하는 순간이 충분하게 없었다. 하고 싶은게 많았기 때문에 다음 할 것만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나니 내 자신이 지쳤다. 나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수업에 한번도 지각하지 않고, 레포트를 꼬박꼬박 내는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다. 친구들과 놀리도 다니고, 수업을 안가고 집에서 시간을 보낸 적도, 버스를 타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적도 여러번 있었는데 지쳤다. 많이 놀았지만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제대로 놀지 않았다는 마음이 들었다. 항상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고 항상 그것들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려고 보름동안 아

무 생각없이, 계획 없이 우리나라를 돌아다녔다.

먼저 경북 영주 부석사에 갔다가 무량수전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부처님과 마주 앉아 두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삼십분을 어두운 무량수전안에 앉아 있다가 바로 돌아가려했다. 순간 스님이 종 치는 소리가 들렸고, 북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무량수전으로 돌아가 스님이 불경을 외고 절을 하는 모습을 뒤에 앉아 바라보았다. 그렇게 부처님과의 시간을 보낸 뒤 밤길을 걸어내려왔다.

겨울밤 산길을 내려오는데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분은 견딜 수 있는 것 같은 든든한 것이 내게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밤길이 정말 깜깜했는데 부석사에서 가로등도 없었고, 실패한 것들도 있다. 덕분에 값지고 멋진 것들을 얻기도 하고, 실패의 쓴 맛을 얻기도 했다.

보름동안 나는 내가 얻은 것들 중에 의미가 없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왔다. 스무살이 되고 어린 일을 하면서든지 나는 그동안 목적이 있었고, 그것들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었고 얻을 것을 기대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얻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했던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시 학교에 돌아와 보니 스펙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들린다. 다들 뭔가에 투자하고, 하지 않더라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너무 빨리 기다보면 놓지는 것이 주변 풍경뿐만이 아니라는 것, 어디로, 왜 가는지조차 모르게 된다는 것을 느꼈다. 잊어버리고 가벼워지고 나서야 느꼈다. 깜깜한 산길을 걸었던 그 순간은 이번 여행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걱정이든 하는 일이다 이것저것이 너무 많아서 친지사람이 있다면 내게 소중한 순간이었던 이 깜깜한 길에서 느꼈던 것을 같이 나누고 싶다.

무명천 할머니, 이젠 웃으세요

동문칼럼

송지은
행정학과 02학번
프리랜서

4월이 오면 무심코 지나던 밭담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시 한편이 있다.

‘무지년 그날, 살려고 후다닥 내달린 밭담 안에서 /누가 날렸는지 모를 /날카로운 한 발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턱...’

(허영선 시인의 ‘무명천 할머니 중’)

곧 가슴이 먹먹해진다. 내가 허영선 시인의 ‘무명천 할머니’ 시를 잊을 수 없는 건 나름의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3월 27일 국립제주박물관 전시실에서 ‘4·3후유장애자 생애사 아카이브전’이 개최된 적이 있었다. 나는 학생기자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취재를 위해 전시실을 방문했다. <제주대신문 712호, 2004.3.31 ‘몸에 새긴 기억, 지워지지 않는 흔적’>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무명천 할머니’의 영상이 무겁게 돌아가고 그 옆에 길게 내려진 검은 턱 위로 시 한편이 새겨져 있었다. 이 시가 바로 ‘무명천 할머니’다.

이 가련한 할머니의 삶을, 고단한 삶을 살게 한 4·3을 알아야만 했다. 내가 4·3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여기에 있음이다. 그리고 그해 ‘무명천 할머니’는 두발로 딛었던 땅, 조그마한 턱에 묻혔다. 서럽고 서러웠으며 가련하고 가련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어떤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허영선 시인의 시구를 빌려 쓸 수밖에 없었다. <제주대신문 721호, 2004.9.15. ‘돌하루방: 무명천 할머니의 명복을 베푸니’> 전시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었다. 그렇게 4·3후유장애자들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그리고 고상만, 김명주 제주대신문사 선배님들과 함께 4·3후유장애자들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을 이어갔다. 4·3후유장애자협회의 청장을 도우며 2006년, 2007년, 2008년에 걸쳐 <제주 4·3후유장애자 실태조사 보고서 I, II, III>을 발간하게 됐고, 2007년에는 4·3후유장애자 불인정자 행정소송 및 재심의 신청에 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4·3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 한편이 준 가슴의 파동이 꽤 오래 흘리고 있는 것도 같다.

2000년 ‘제주4·3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그리고 3월 24일에는 4·3이 법정기념일로 지정·공포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66년만이다. 4·3해결의 어두운 장막이 거친다. 그래서 다시 생각이 낫는지도 모른다. 검은 장막에 눈물을 흘리듯 슬프게 4·3후유장애인의 삶을 이야기 한 ‘무명천 할머니’ 시.

어두웠던 4·3의 역사를 66년 만에 국가가 인정하고, 4·3해결의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긴 세월 고통받아온 4·3후유장애인들의 문제는 아직도 멀게 느껴진다.

4·3후유장애인의 선정과정에서 붉어져 왔던 재심의, 불인정 등의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4·3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역사가 빚은 비극을 고스란히 전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 제도권 안에서 소외받는 이들의 한을 보듬을 정지가 부족한 것이 지금 현실이다.

다시 4월이다. 66년 만에 4·3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2014년이다. 오랜 세월 몸에 새긴 상처를 쉽게 말하지 못했던 한 많은 사람들의 아직 여기에 있다.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66년간 묻어두었던 아픔을 함께 해원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미투상품’을 거부한다

독자기고

정민선
컴퓨터공학과 1

얼마 전 나에게 필요한 가방을 구매하고자 여러 곳의 가게를 돌아다녔다. 취향에 맞는 상품을 고르지 못한 채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최근 아름다운 연예인이 TV 드라마에서 사용해 인기를 끈 상품을 추천해 줬다. 광고값이 제품의 가격에 거품이라도 끼얹었는지 가격은 무시무시했다. 풀이 죽은 새 집에서 인터넷 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해보자고 했다.

사이트에 상품이름을 검색하자 나오는 수많은 상품들을 보고 나는 크게 놀랐다.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이미테이션’ 상품이 너무나 당당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다시게 했다. 이렇게 한국사회는 인기있는 상품들을 베껴 만드는 ‘미투 상품’에 빠졌다.

나는 미투상품을 선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이들의 노력과 연구로 탄생한다. 하지만 미투상품은 말을 곱게 포장해서 ‘모방’이지, 도둑질이나 다른 대체품과의 차이를 지우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투상품은 결국 우리나라의 아이디어는 경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과거 상품의 모보가 ‘소품종 대량생산’이었다면 현재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다. 같은 공장에서 무한정 찍어내는 비슷한 상품은 가치가 없다는 얘기다.

소위 말하는 ‘브랜드’의 가치가 더욱 올라가는 시대에 아직도 미투상품에만 매달려 아이디어를 날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영 1위가 될 수 없다. 과거에 한 평론가는 이런 말을 했다. “비틀즈의 음색을 완벽하게 따라한다 한들 그는 모방가수일 뿐이다. 하지만 비틀즈의 음색을 내지 못하더라도 자신만의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면 그는 이미 훌륭한 가수다.”

‘유명브랜드 스타일’이라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판매전략은 엄연한 범죄다. 한 상품의 곤선 디자인 하나라도 엄연히 디자인권에 포함된 법의 보호를 받는다. 소비자들이 미투 상품에 열광할수록 시장은 점점 도태될 것이다. 몇 끝 아끼고 창의력을 죽일것인가.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개재된 원고에 대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 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nu.ac.kr

김창인 실천철학 특강 박태수 명예교수 ‘나의 인생,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박태수(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예교수) 교수의 특강이 지난 3월 27일 오후 3시 박물관 2층 문화교류관 시청각실에서 ‘김창인 실천철학 특강–나의 인생,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의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강연 요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의 수명은 앞으로 90세 이상까지 아득하게 남아 있다. 이런 긴 인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김창인 회장은 실천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고 했다. 자신이 머리로는 많이 생각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효도’라는 말을 유태원부 대학교까지 얘기를 듣는다. 사람들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지 문제를 내면 전부 효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효도하는 사람은 백 명 중 몇 명이나 될지 알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지금 우리들의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

‘심리사회 별달 이론’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생을 8단계로 나눴다. 인생에서 20대를 성인초기라 말하며 20대에 별달과업을 두 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랑과 우정, 친밀감을 형성하며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뤄야 한다.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자아개념을 형성해야 한다. 앞으로 일생의 경

>> 아라해외봉사단 베트남 해외봉사캠프 취재기 <2>

‘사랑의 인술’ 베트남 농촌 오지에 꽂피우다

초등학교에 의료시설 마련, 불소도포와 성교육도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열정적인 진료 빛나

제주대학교 아라해외봉사단(단장 김성업)은 2월 15일부터 8일간 베트남 광찌성에 서 의료봉사를 했다. 둘째 날부터 봉사단은 의료봉사팀과 교육봉사팀으로 나뉘어 광찌성 내 주민들을 도왔다. 의료봉사팀은 광찌성의 ‘여하이’ 초등학교에 의료시설을 설치해 봉사를 시작했다. 베트남 주민들과 함께 웃고 울며 마음을 공유하고 온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편집자 주>

“Can on, doctor!”

많은 아이들이 침대에서 잠투정을 하고 있을 이른 아침, 자신의 몸보다 커다란 자전거를 타고 온 한 소녀가 조그맣게 인사를 건넸다. 몸이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약을 타려 왔다고 그녀는 말했다. 약봉지를 건네받고 의사에게 감사하다며 씩 웃어 보이는 소녀. 약봉지를 신나게 훔들면서 돌아가는 소녀의 모습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

늙은 아버지를 업고 면 길을 찾아온 한 청년과 자신의 몸이 더 만신창이인에도 아이를 먼저 치료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그들을 바라보는 봉사단의 눈가 또한 촉촉이 젖어갔다.

지속된 전쟁은 베트남의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남아있었다. 고엽제의 피해가 가시기도 전에 태풍으로 또 한 번 아픔을 겪은 베트남 광찌성. 봉사단은 지난 2월 16일 광찌성의 ‘여하이’ 초등학교에서 한줄기 사랑을 쏘았다.

네 번째 봉사를 앞둔 봉사단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와 사전 조사를 통해 베트남 광찌성을 찾았다. 최대한 베트남 현지에 서 구할 수 있는 의약품 위주로 약품 리스트

를 작성하고, 정부가 허용한 필수 의약품은 한국에서 대량으로 준비를 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봉사단이 ‘여하이’ 초등학교에 도착하자 ‘Xin Chao!’하고 우렁찬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봉사단을 반갑게 맞이하고자 한 교장선생님의 작은 배려였다.

아이들은 한없이 순수했다. 봉사단이 학교에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신기해했다. 놀랍게도 이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환자들이 앉아서 기다릴 의자를 가져왔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먹을 간식을 건네주면서 방긋 웃기도 했다. 봉사단은 아이들과 하니가 되어서 진료를 준비했다.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교실이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와 약국까지 마련된 제법 훌륭한 병원이 됐다.

늘이터 앞마당에 설치한 접수계에 커다란 종을 설치함과 동시에 봉사단의 여정이 시작됐다. “땡, 땡, 땡”,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민들에게 봉사단의 사랑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환자의 접수부터 진찰, 치료, 치방까지

접수계에서는 정원무 KOICA 단원을 포함해 6명의 학생들이 수많은 베트남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픈 사람들은 많은데, 학교는 너무나 좁다보니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풍나물시루처럼 빠듯하게 환자들이 들어섰다. 김동전 메디피스 간사는 큰 소리로 대

기환자들의 번호를 불렀고, 이따금씩 장난을 치는 어린 학생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의전원 학생들은 맥박을 재고, 그들의 아픈 곳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환자들을 열

심히 상대했다.

장석원(의학전문대학원 4) 씨는 “접수를 통해 환자들이 어떤 병원을 찾을지 설명해야 하는데 환자들이 자신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접수를 마치고 나면, 환자들은 친절하게 베트남어로 적힌 병원의 표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의 안내를 통해 병원으로 들어서면 교수와 베트남 병원의 의사, 다양 대학교 통역학생이 함께 병원을 지키고 있다. 베트남의 법은 외국의 의사가 약 처방과 진료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에 봉사단은 현지 의사의 도움과 다양 대학교의 한국어과 학생의 통역을 통해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외과에서는 이창현(외과) 교수가 환자의 이곳저곳을 어루만지며 진찰을 하고 있었다. 30년 동안이나 영문 모를 고통에 잠을 편하게 이루지 못했다는 기에우 텐 타오(57세) 씨는 이교수의 초음파검진기를 통한 진료를 받았다. 약 처방과 함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그는 “그동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놀사를 마을 것 하지 못했는데 당장이라도 일하러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환하게 웃어 봉사단에게 기쁨을 안겨줬다.

옆 교실에 마련된 내과에서는 한상훈(내과) 교수가 한 노인의 설명을 한참 듣고 있었다. 한교수는 의사가 되기 전 KOICA 단원 등 여러 활동을 경험했었다고 한다. 통역 도움 없이도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자 노인은 안심한 듯 자신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 모습을 보며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을 통해 생기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치료보다 주민들의 의식개선 필요

한상훈 교수는 “베트남은 아직도 원시적인 미신이 많이 남아있어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면 메디피스나 NGO 등

▶ 안해림(의학전문대학원 1) 봉사단원이 호아마이 유치원생에게 불소도포를 해주고 있다 (사진 위). 강현식(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여하이 마을 지역의 한 아이를 진찰하고 있다 (아래).



에서 한 마을에 우물을 설치해 준 뒤 그 물을 마시라고 하면 주민들이 거부한다. 그리고는 촌장이 소위 ‘신성한 물’이라 칭하는 흙탕물을 마시놓고 마시는데 결국 이것이 대장염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며 “의료봉사를 통해 환자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단순히 진찰을 보고 의약품을 나눠주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전체적인 의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고 말했다.

어느 병원이나 아픈 환자들이 복적거리지만, 그 중에서도 줄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 병원이 눈에 띄었다. 한국의 병원에서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무서워하듯, 강현식(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칭진기를 갖다 대자 아기가 금세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아기를 쳐다보며 울음을 달랬다. 문득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병원의 모습은 만국 공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교수는 베트남의 많은 아이들이 겪는 증상은 주로 영양섭취 부족과 호흡질환에서 온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호흡질환을 겪는 이유는 급속도로 증가한 베트남의 오토바이 때문이기도 하다. 베트남의 거리를 둘러보면 중형차나 대형차를 찾기가 무척 힘들다. 국민들의 80~90%가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며 한 가정에 한 대 이상의 오토바이는 필수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갈 때 아이를 등에 업은 채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이에게 가혹한 형벌과도 같다. 현지 의사가 말하기, 최근에는 교통 수단으로 오토바이 대신 자전거를 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워낙 오토바이에 익숙해진 베트남 주민들이 쉽게 습관을 고치지 못해 문제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에서는 박철민(산부인과) 교수의 지도아래 나이 든 부인과 젊은 처녀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베트남 처녀들이 마음을 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수원과 상담원을 여자로 구성한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었다.

베트남에는 아직 피임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많은 처녀들이 성병의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한다. 봉사팀은 어린 처녀들에게는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 담긴 성교육을 통해 진료를 시행했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불소도포

각자의 병원에서 진료가 한창일 때, 박진아(의학전문대학원 2), 안해림(의학전문대학원 1) 두 학생은 교육봉사팀이 있는 호아마이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불소도포를 하려 떠났다.

그녀들이 불소도포를 하기 위해 교실로 찾아가자 달콤한 낯잡을 자고 막 일어난 아이들이 손을 훔들었다. 박진아씨가 불소도포 방법을 가르쳐주자 아이들은 신나서 따라한다. 하지만 불소액을 입에 넣자 뺄는 아

이와 약을 삼키고 어쩔 줄 모르는 아이들까지, 그녀들은 귀엽기만한 아이들에게 한참을 시달린 뒤 땀을 흡친다.

모든 치방을 받고 한결 가벼워진 표정의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은 강영준(응급의학과) 교수가 있는 약국이다. 약국은 환자들에게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증상이 반복되면 큰 병원을 찾으라는 등 중요한 전달사항이 많다. 통역을 돋는 학생들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 환자들에게 두 세 번 씩 약사의 말을 전달해주는 약사들은 감사의 표시를 한다.

봉사단에게 큰 웃음을 준 환자도 있었다. 구충제를 받은 레빈 프랑 미(15세)가 자기 뱃속에 수많은 벌레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약을 수십 개 받아가겠다고 울음을 터뜨려 모두를 당황시켰다. 강교수의 설명을 듣고 나서 울음을 그친 아이가 입술을 빠죽 내밀자 봉사단 모두가 씩 웃었다.

의료봉사팀의 마지막 봉사날, 봉사팀은 주민들이 준비한 깅작 선물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들을 위해 너무나 고생 많았다면 갖가지 음식과 선물을 권했다. 봉사단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큰 감동을 받고 살짝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에게 보잘 것 없는 약 몇 봉지일 뿐이겠지만, 봉사단과 베트남 주민들은 서로 사랑을 나눠가졌다. 봉사단은 자신들이 행한 봉사가 이들에게 작게나마 행복을 전해 줬으리라는 생각을 하며 뿐듯한 마음을 품고 돌아왔다. 강수빈 기자

» 베트남 의료봉사 체험기

“언젠가는 의료봉사단 직접 이끌고 싶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기 전부터 고대했던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 순간의 설렘을 잊을 수 없다. 처음으로 한국을 떠나는 경험과 함께 의료봉사라는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뿐만 아니라

4시간 비행 끝에 비행기가 베트남에 착륙하고 부푼 기대를 안고 베트남 다양 공항에 들어섰을 때였다. 기본 마음에 사진을 찍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베트남어로 공항에서의 활영이 금지돼 있으니 찍은 사진을 지우라는 경고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공항과는 사뭇 다른 경직되고 살벌함까지 느껴지는 모습에서 ‘아, 내가 베트남에 왔구나.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다음날 버스를 타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베트남 중부의 광찌성으로 향했다. 광찌성은 다양에 비해 외지와의 교류가 적고 작년 태풍피해가 커던 도시로, 많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한 곳이었다. 광찌성 여린현 초등학교와 호아마이 유치원에서 봉사활동으로 맡은 일은 아이들의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였다. 한국에서 치과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사전교육을 받은 것을 되뇌이며 월요일부터 4일간 불소도포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행위에 지치기도 했지만 지루함을 덜어줄 에피소드들이 있어 시간 기는 줄 모르고 활동을 했다.

불소도포는 액체 불소를 입에 머금고 있다가 뺄 때 불소를 거즈로 깨끗이 입안을 닦는 활동이다. 신 맛이 나는 불소를 머금고 있는 것이 힘들지만 꼭 참는 어린 아이들의 눈물고인 눈동자가 지금도 아른거린다. 기끔 아이들이 구토를 하기도하는데, 당황하면서 미안해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



안 해림
의학전문대학원 1

고 귀엽다는 생각도 했다.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남은 영구치가 3개만 있는 아이도 있었고, 닦는 도중에 생기는 작은 마찰에도 이전에 생긴 충치가 빠져 본의 아니게 발치와 지혈을 한 일도 있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머금고 있던 불소를 뺄 때마다 내 얼굴에 침을 뿐이겠지만, 봉사단과 베트남 주민들은 서로 사랑을 나눠가졌다. 봉사단은 자신들이 행한 봉사가 이들에게 작게나마 행복을 전해 줬으리라는 생각을 하며 뿐듯한 마음을 품고 돌아왔다.

제주대학교 해외의료봉사팀은 불소도포 이외에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진료를 보고 비타민과 구충제를 포함한 치료 약품을 나누어 주는 활동을 했다. 임상진료에 관한 지식이 많은 선배들은 진료를 보시는 교수님들을 보조하여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환자들을 살폈다. 곧은 날씨에 원활치 못한 통역과 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도 씨푸른 하늘에 교수님과 선배들은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뒤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여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을 확고히하게 되었다. 언젠가는 직접 의료봉사단을 이끌고 여러 나라를 누비고 싶다.

01

» 지원 내용

▶ 최대 7천만원 (총사업비의 70% 한도)

시제품 제작,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창업 준비활동 지원

- ▶ 기술창업자 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20% 이하 현물 부담
 - 학부 재(휴)학생은 5% 이상 현금 부담, 25% 이하 현물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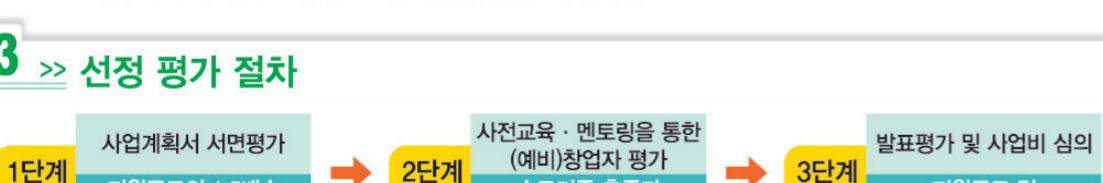
02

» 신청 자격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 신청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의 대표자 (※ 기업의 대표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자)
- ▶ 신청 기간 : 2014년 3월 24일(월) ~ 4월 8일(화), 18:00 까지
- ▶ 신청 방법 :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 지원 제외 아이템 : 숙박, 요식, 여행, 사업 등

03

» 선정 평가 절차



※ (예비)창업자 본인이 2단계(25시간으로 운영하는 사전교육·멘토링 평가 프로그램)와

3단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 참여 시 선정에서 제외 됨

04

» 문의 사항

- ▶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 (<http://changup.jejun.ac.kr>)
T. 064) 754-2066, 4431 / F. 064) 755-2131

담당자 : 김상현, 강로사

※ 선정된 기술창업자는 향후 창업교육 50시간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 희망 시 우선 배정 ※ 공용 창업 준비 공간지원